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역사적 소고¹

이우성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목차

- I. 서론
- II. 기독교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 III. 기독교 사상에 기초한 현대 경제학 비판
- IV. 기독교 경제학의 실질적인 논의들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경제활동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한 사회에서의 경제체제와 활동도 그 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한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는 정치와 문화 등 다른 영역들이 존재하며 경제가 이들 위에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라면 그 사람의 생애는 오히려 불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사회와 개인의 사상, 그리고 경제학은 인간의 최우선 행복을 물질주의적인 이익의 추구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질주의적인 이익의 추구가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사회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바벨론을 바라보시는 심정과 같을 것 같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칭하면서 무역과 상업, 경제의 부흥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교만하던, 그러나 그 속에 불의와 악행과 억압함이 만연한,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의로움을 버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침통하시는 마음은 현대의 세대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같을 것 같다.

성경은 우리의 경제활동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돌보는 청지기적 활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이 생산적이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며 인간

¹ 본 고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독교학문연구소 경제분과 회원 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돈에 대한 사랑과 무제한적인 이익추구, 죄악된 욕망의 추구가 가져올 타락의 결과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과 정의로운 경제활동, 나눔의 자선적인 삶을 살 것으로 촉구한다. 성경은 인간의 이익추구의 목표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 다른 동료들과 가족들과의 사랑을 더욱 추구할 것으로 명하며 우리의 경제활동은 일과 소득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이룰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성경의 사상은 비록 기독교가 경제정의와 사회적 구제의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 부분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후 정치와 경제문제에 있어서의 많은 부조리한 문제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의회와 법률을 통해서 시정되고 이후 선한 관례와 규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기억한다. 비록 사회구제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의 부족함이 지엽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더 많은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사회의 구제적 활동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와 같은 역할을 한 단체나 국가, 종교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경제학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활약은 매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과 함께 현대사회의 부의 축적이 시작되면서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한 현대의 경제학 이론들은 그 시초부터 공리주의에 입각한 개개인과 기업의 이익극대화에 그 철학적인 기반을 두고 주류경제학이 발전하였다. 이익극대화라는 개념은 경제학이 복잡 다계해지며 세분화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경제학의 근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익극대화의 경제행동이론에 대한 반론은 세속적 경제학에서도 끊임 없이 비주류에서 있어 왔으며 제도학파에서는 사회제도와 도덕성의 중요성을 개인과 사회의 이익극대화 모형보다 더욱 강조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여기에 기독교인 경제학자들도 1960년대 이후부터 현대의 경제학의 도덕적, 방법론적 기초에 비판을 가하면서 청지기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경제학을 시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기독교 경제학의 결과들을 정리함으로써 기독교 경제학의 연구결과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진단해 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의 학창시절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을 배우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기독교 경제학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논문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출발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고는 필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음직한 기독교인 경제학도를 위하여 기독교 경제학을 시작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여졌다.

본 고는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기독교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과 기본 사상을 정리해 본다. III장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방법론적, 도덕적 기반에 대하여 기독교

교 경제학자들이 가하는 비판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기독교의 사상적 기반으로써 청지기 의식과 경제성장의 대안을 알아본다. 이어서 IV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현대경제학의 각론으로 들어가 산업생산에 있어서의 세가지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경제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판과 대안들을 살펴보고,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와 기업 투자의 행동양식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판과 대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인간의 타락과 죄된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빈곤과 빈부격차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개인과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판과 대안들을 알아본다. V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 본다.²

II. 기독교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나 윤리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논쟁을 평가하고 살펴보는 것은 통찰력과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본 고의 한계를 벗어난 작업이며 이 장에서는 단순히 현재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시각에서 대체로 어떠한 합의들이 존재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경제활동에 관한 입장은 초대교회의 경제적 공동체의 삶을 중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나눔의 삶을 강조하고 재산과 부의 축적을 경계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되고 공인된 종교로서의 특권들을 누리게 되면서 약화되었으며 성 어거스틴에 이르러서는 사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추세로 바뀌었다. 중세 시대에 들어서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였는데 성 프란시스와 추종자들, 수도원 운동은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파악하며 비판하면서 공동체적 삶과 구제의 삶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카톨릭 교회 내에 만연한 부패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볼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카톨릭 교회의 전통들은 점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적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지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 자발적 자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중세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재산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주장 이래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회윤리를 강조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손규태, 1999). 또한 중세의 경우 교회로부터 공정 이자율과 공정 임금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² 본 고에서는 각 장 마지막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였다. 참고자료들은 Tiemstra, John P.의 Christianity and Economic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1993, Christian Scholar's Review)", Hartropp, Andy의 Christianity and Economics: An Annotated Bibliography(1997,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에서 대부분 발췌하였다. 이들 두 논문은 현대의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고찰(review) 논문들로 필독을 권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의 경제에 대한 입장은 루터와 칼빈의 직업소명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루터와 칼빈은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근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검소한 삶과 저축, 자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리대금업, 독과점, 투기 등을 통한 약자의 착취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사용에 있어서 규제와 저축 등으로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칼빈의 경우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이러한 칼빈주의적인 전통에 기인하여 개인적 책임과 검소한 삶을 강조한 청교도의식이 나타나게 된다(김홍섭, 1996). 현대에 들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독교의 경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자유신학에 기초한 좌파적인 입장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입장들이 존재하여 공산주의의 몰락 이전에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존재하였다.

기독교의 경제에 대한 관점은 현대에 이르러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1990년에 발표된 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Schlossberg et al., 1994) 이 선언은 A.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 B. 일과 쉼, 여가, C. 빈곤과 경제정의, D. 자유와 정부, 경제학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독교의 경제에 대한 관점과 사상에 대한 협의를 총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100명 이상의 현대의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 경제학자, 윤리학자, 교회 지도자들, 경제발전에 참여한 실무자들, 경영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기독교가 경제를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각 경제주체가 경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범주 혹은 올바른 행동양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언문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면 A.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청지기적 사명”에 관한 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선언하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돌볼 것을 위임하였다는 청지기 의식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청지기적 의식을 바탕으로 자원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촉구하며 자연세계에 대한 남용을 경고하고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하여 언급한다.

또한 경제적 생산활동을 청지기적 사명에서 나온 산물로 인식하면서 성경은 모든 형태의 물질주의, 불의, 탐욕을 부정하지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진보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기술진보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다고 말한다. 기술진보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인간소외 현상, 자연파괴 등을 배격하는 동시에 기술진보로 인한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술진보를 적절하게 사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B. “일과 여가” 부분에서 선언문은 일과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한다. 일의 본질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청지기 사명에는 일이 그 자체적으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반면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과대평가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명시한다.

일의 목적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의 일의 목적을 규정한다. 또한 인간의 타락 이후 일이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된 고귀한 사명인 동시에 땀을 흘려 일을 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준다는 일의 양면성을 지적한다. 여기서 선언문은 인간의 노동이 단순한 생산에서의 노동투입이나 비용의 의미, 생산수단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개인의 인격적인 활동으로 볼 것을 촉구한다.

일은 또한 개인의 이익 추구의 경우에도 전체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하고 여성들과 한계집단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또한 성경이 착취와 억압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취약한 노동조건과 임금 등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있어서는 안됨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쉼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으로 모든 인간은 일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는 공동체가 취업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과 모든 개인이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동시에 의미한다. 비록 완전고용이 강제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정의와 자원사용을 통하여 최고수준의 고용을 달성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한다.

성경에서의 쉼은 인간의 생산적 활동에 한계를 정하고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따라서 인간은 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쉼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향유하고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인간간의 교제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발전시키게 된다.

C. 빈곤과 정의 부분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본 창조계획에는 빈곤이라는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비자발적 빈곤은 어떤 형태로든 타락의 결과라고 본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함을 갖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와 공평, 자선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

가난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한데 여기에는 인간상호간에 행하는 악이 포함되며 사회의 문화적 태도, 경제, 정치, 종교적 체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차원에서 빈곤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빈곤은 기본적으로 부의 생산수단에 대한 제약과 부와 소득 불공평한 분배로 인하여 발생한다. 모든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차별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외국인들, 임금 노동자와 노예들에 대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함께 나눌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 가운데 약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이 인격체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가장 심각한 빈곤 이슈 가운데 하나는 불평등한 국제관행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빈곤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 부담은, 특히 1980년대의 이자율 상승에 따른,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며 이는 자국민들의 빈곤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각국 정부들과 국제기관들이 제3세계의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무역의 확대가 빈곤축소에 기여한다고 보고 특히 부요한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을 경계한다.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빈곤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바 이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세계적으로 군비지출규모는 세계에서 가난한 절반국가들의 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군비축소와 함께 식량, 보건, 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마약의 사용과 배포는 빈곤국가와 부유국가 모두를 병들게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에서 소수계층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는 법적, 정치적 체계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신용금융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NGO와 같은 비공식 부문의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 부분인 D. 자유와 정부, 경제학에서는 인권의 탄압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한다. 인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데에 기인함으로 사회와 국가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자유에 대한, 생존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으나 타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체계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주기적인 투표만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실현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가 소수의 경제적, 정치적 특권계층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나 민주적인 다수가 물질주의적,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차별성을 가지고 불공정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즉 모든 인간의 기관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하여 개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특정한 경제체제를 옹호하진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나 역사적인 경험으로 국가나 기업들에 의한 독점적인 소유는 위험하며 소유권의 다양한 분포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전제주의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의 경제주체가 경제적으로 한

계계층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체제 보다는 시장경제에서 경제력이 더 분산되었음을 인식한다. 중앙계획적인 경제체제는 경제적인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되고 개인들의 경제적 결정이 배제된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의 빈곤계층이 소외되며 전반적인 부패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개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물질주의적인 부의 축적에 두게 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 만연한 소비주의는 시장경제의 결과가 비기독교적인 가치를 증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의 하나는 근로자들을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생산투입요소로만 보는 관점이다. 만연한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활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가치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우리의 악한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는 권력과 탐욕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정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생명과 자유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체계를 세워야 하고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생존유지를 위하여 배려하여야 하나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나 공동체와 가족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증대되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구분을 이어주는 중재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기구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책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빈곤의 축소에 있어서 미시적인 소득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시금융과 같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NGO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교회는 빈곤계층의 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뿌리깊은 연관을 통해 자발적인 중재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선언은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이 그 동안 논의해온 많은 주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더라도 많은 주제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통합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청지기적 의식에 관한 견해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을 제시하고 성경이 경제적 활동을 죄악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기술진보의 긍정적인 성격에 대하여도 언급하면서 그러나 기술진보가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견해는 세속적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경제인, 혹은 이익극대화에 전면 반대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인간의 경제활동이 경제성장이나 파레토적인 효용극대화, 혹은 이기적인 이익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활동을 포함하지만 자원과 공동체,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갖는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일의 목적에 있어서도 세속적 경제학이 사회적 효용극대화라는 목표 하에 인력을 생산의 투입수단으로 단순화하는 개념을 배격하고 일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는 측면을 부각시킨다. 결국 현대경제학은 효용극대화라는 가치관에서 인력투입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선언문은 일의 창조적 측면, 사회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쉼에 관한 명제에서는 인간의 생산활동에 한계를 정하였다는 것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애 대한 끊임없는 추구에 매여 있는 현대경제학과 국가들에게 그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오히려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하여도 취약한 노동조건과 임금착취에 대한 반대, 완전고용 혹은 최고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A, B 부분에서 경제활동의 목적과 한계,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성경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면 C, D에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 발생한 빈곤과 인권억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술한다. A, B에서 제시하는 청지기적 사명과 일과 쉼에 대한 개념은 현대 경제학이 제시하는 공리주의적인 이익극대화 가치와 상충하며 이는 공리주의가 현대경제학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다. C, D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효용극대화에 기초를 둔 현대경제학으로는 설명이 곤란하고 대안제시가 어려운 세상의 죄악을 다루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한과 한계를 둘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약자들을 돌볼 것을 촉구한다.

먼저 빈곤의 문제에 관하여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비를 베풀 것을 촉구한다. 이는 결국 경제정의와 자선적 구제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제로 제3세계의 과도한 부채 탕감, 인플레이션 억제, 군비지출 축소, 개발도상국에서의 NGO 등에 의한 미시금융의 활성화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과 시장경제 체제, 비공식 기관의 역할에 관하여는 정부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권보호와 경제정의의 실천,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또한 경제력의 집중과 사유 재산 제도에 관하여 성경은 어떠한 경제체제나 정치체제를 옹호하지 않으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국가나 기업에의 독점적 소유와 경제력 집중은 위험하며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포가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계가 그러한 점에서 우월했음을 지적한다. 여기에 향후 중재기관으로서 빈곤의 축소와 인권보호에 NGO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이 선언문은 기독교 경제학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기독교가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세속적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에 대한 반론과 기독교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를 제시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빈곤과 착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정의와 자선적 자비의 실천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경제학이 나아갈 바는 청지기 의식과 일과 쉼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공리주의와 효용극대화의 가치관에 입각한 현대경제학의 오류를 비판하고 경제의 평가와 분석, 정책대안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죄악된 세상에 경제정의와 자선적 자비의 실천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정부와 기타 사회단체들의 역할에 관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하여 현대 경제학이 갖는 방법론적인 오류와 공리주의의 효용극대화를 비판한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김홍섭, 1996,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회고와 새로운 모색”, 통합연구 통권 29(제9권 1/2호)

손규태, 1999, “교회사에 나타난 경제사상”, 기독교와 경제(호남신학대학교 편), 편집 정덕주, 한들출판사

Atherton, John, 1992, “Christianity and the Market: Christian Social Thought for our Times”, London:SPCK

Barnett, Jake. 1987. Wealth and Wisdom: A Biblical Perspective on Possessions. Colorado Springs: Navpress.

Griffiths, Brian “The Theological Dimension’, in his book “The Creation of Wealth”, London: Hodder & Stoughton, 1984

Haan, Roelf. 1988. The Economics of Honour: Biblical Reflections on Money and Property. Geneva: WCC.

Hay, Donald.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Leicester, UK: Inter-Varsity.

Meeks, M. Douglas. 1989. God the Economist. Minneapolis: Fortress.

Mott, Stephen Charles. 1987. The Bible and Economics: What Does It Tell Us? Transformation 4 (Summer/Fall), pp. 24-33.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1986. Economic Justice for All: Pastoral Letter on Catholic Social Thought and the U.S. Economy. Washington: U.S. Catholic Conference.

North, Gay, 1973,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conomics”, Nutley, N.J.: Craig Press

Schlossberg, Herbert, Vinary Samuel, and Ronald J. Sider, 1994, “Christianity and

-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Wim. B. Eerdmans Publ. Co., Grand Rapids, Michigan
- Schluter, M. and D. Lee, 1993, “The R factor”, London: Hodder & Stoughton
- Schmacher, E.F., 1974,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London: Sphere
- Sider, Ronald J., ed. 1980. Living More Simply: Bibl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Models. Downers Grove: Inter-Varsity.
- Storkey, Alan “A Christian Paradigm”, in his book “Transforming Economics: A Christian Way to Employment”, London: SPCK 1986
- Tiemstra, John P., W. Fred Graham, George N. Monsma, Carl J. Sinke, and Alan Storkey. 1990. Reforming Economics: Calvinist Studies on Methods and Institutions. Lewiston, N.Y.: Edwin Mellen.
- Williams, Paul, 1996 “Hermeneutics for Economists: Issues in Interpretation”, Journal of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22, pp13-37
- Wolterstorff, Nicholas. 1987. The Bible and Economics: The Hermeneutical Issues. Transformation. 4 (Summer/Fall).
- Wright, Christopher J.H., 1983,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Leicester: IVP
- Wright, Christopher J.H., 1995, “The Use of the Bible in Social Ethics” in his book “Walking in the Ways of the Lord: The Ethical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Leicester: Apollos, 1995

III. 기독교 사상에 기초한 현대 경제학 비판

현대 경제학에 대한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현대경제학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한다. 현대 경제학은 개인의 이익극대화의 공리주의적인 철학과 객관적인 과학 철학이라는 방법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경제학이 인간의 가치판단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현대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공리주의적인 가치관은 현대의 물질주의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청지기적 의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방법론적 측면(normative vs positive)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의 비판 이전에도 과학철학과 경제학 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비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은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론, 즉 인식론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이 객관적인 가치와 무관한 과학적 학문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Hay, 1989).

현대 경제학의 방법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있다.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1930년대 이후 경제학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특히 계량경제학의 발전과 더불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경제학 방법론의 주류가 되었다. 이는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논문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하나의 가설은 그것의 계량경제학적 예측력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하며 그 가설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경제학 방법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Friedman, 1953).

이에 대하여 비판론자들은 실증주의적 방법론과 검증의 기초가 되는 예측력은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며 비현실적인 가정들 의하여 이론이 기각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현상에 대한 인식과 진리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실증주의적인 방법론을 완전히 부인한다기 보다는 진리에의 접근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경험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진리와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규범이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말씀이나 인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말씀은 인간이 관찰이나 양심을 통하여 선함과 악함, 사물의 규칙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성경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사람의 양심 가운데 계시하신 일반 계시로부터,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양식과 사회의 규범을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과 사회의 경제활동과 규범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로부터 경제학적인 관계들과 가설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예측력을 가설과 진리의 검증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본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대경제학의 실증주의적 경험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현대경제학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신고전학파가 내세우고 있는 객관적인 방법론, 즉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과학적이고 수학적 방법론에 있다. 이는 과학이 가치판단과 분리되어 있다는 철학적 기초와 연관되어 있다. 과학이 가치와 무관하다는(value-free) 관정도 세속적 경제학과 철학 내에서도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으며 특히 1980년대 들어 본격화 되었다.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신고전학파가 경제학이 경제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는 객관적인(positive) 학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과학철학에 있어서 토마스 쿤 등에 의해서 제기된 것과 같이 현상의 관찰이나 데이터의 선택, 연구주제의 선택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된다

고 주장한다. 즉 경제학은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되는 normative한 학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여기에 신고전학파가 수학적 간결성과 완성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실제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현대 경제학이 객관적인 학문임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면하였으나 실상 현대경제학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데올로기적인 추종,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인간관계나 경제정의, 빈곤과 빈부격차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결국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도널드 헤이, 1996,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전강수외 옮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원저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1989
- Cramp, A. B. 1983. Economics in Christian Perspective: A Sketch Map. Toronto: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Ch1 and 3
- Daly, Herman E. and John B. Cobb, Jr. 1989. For the Common Good. Boston: Beacon. Pp35-41 Pp130-132
- Friedman, M., 195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from hi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ud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Grand Rapids: Eerdmans. Ch 19
- Goudzwaard, Bob. 1986. Christian Social Thought in the Dutch Neo-Calvinist Tradition. In Block et al. 1986, pp. 251-265.
- Hay, Donald.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Leicester, UX: Inter-Varsity.
- McKee, Arnold. 1987. Economics and the Christian Mind. New York: Vantage.
- Rasmussen, Larry. 1981. Economic Anxiety and the Christian Faith. Minneapolis: Augsburg. Ch2
- Shinn, Roger L. 1985. From Theology to Social Decisions and Return. In Block 1985, pp. 175-195.
- Storkey, Alan. 1986. Transforming Economics. London: SPCK. Ch2
- Tiemstra, John P., W. Fred Graham, George N. Monsma, Carl J. Sinke, and Alan Storkey. 1990. Reforming Economics: Calvinist Studies on Methods and Institutions. Lewiston, N.Y.: Edwin Mellen. Ch 3 and 4

B. 도덕적 측면에 대한 비판과 대안

현대경제학의 기본사상은 Jeremy Bentham과 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리주의의 개인의 이익극대화라는(self-interested, gain-seeking behavior) 사상과 이후에 파레토에 의해 세련화된 사회효용극대화라는 개념은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가하는 현대경제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경제성장을 한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면서 경제적 형평성과 사회복지, 환경문제, 가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또한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공리주의와 그에 기초한 이익 극대화의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 경제학자들 이전에도 경제학과 철학자들에 의하여 상당한 의문과 반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효용함수는 기존의 소비자 수요선택 이론에서는 구체적인 효용함수를 설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기적인 이익극대화의 공리주의에 기초한 합리적 경제인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1)결과를 중시하고 행위 자체나 그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결과주의, 2)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행위의 규칙과 규범이 배제되는 점, 3)자기 이익이라는 가치외에는 다른 가치가 배제되는 점 등이 비판되어 왔다(Hay, 1989).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공리주의와 그에 기초한 신고전학파(neoclassical economics) 경제학과 후생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였다. 신고전학파의 복지개념은 복지의 판단 기준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삼으며 여기서 유익은 경제적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각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각 개인의 욕구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하여 손상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 정책과 행동의 타당한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비판이다.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정들은 공동체와 가족, 비물질적인 가치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자원배분의 문제에 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소득분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오히려 강조가 안 되고 있다(Tiemstra, 1993).

신고전학파가 전제하고 있는 이익극대화의 가치관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주의적인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돈을 사랑하는 죄된 성품을 묘사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행동양식을 묘사할 수는 없다. 더욱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남아 있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배제하고 인간들의 경제활동의 행동양식을 이익극대화만으로 묘사하는 것은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리주의가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주의는 행위 자체와 과정, 행위에 대한 동기, 불의한 일에 대한 규제 등의 가치관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에서는 개인적 가치와 이익 보다는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 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면서 일을 통한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간의 사랑의 관계는 창조적인 활동과 청지기적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우선하며 경제활동과 이익 극대화,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간의 사랑의 관계가 해쳐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안식의 개념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탐욕스러운 인간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도록 하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던 것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일은 안식에 우선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간의 사랑의 관계에 우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고전학파들에 대한 비판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제도학파(institutionalism)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칼빈주의나 카톨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 루터교와 다른 복음주의자들의 초점은 개발경제학과 관련한 경제성장 이론(development economics)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칼빈주의와 카톨릭이 기독교의 사회개혁 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Tiemstra, 1993).

이들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제도학파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이유는 우선 신고전학파가 갖는 윤리적, 방법론적 결함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더 나아가서 제도학파의 접근법은 신고전학파의 주된 목적인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같은 이슈보다 사회의 다른 목적들(빈부격차의 해소, 부의 분배문제, 삶과 노동의 질적 환경, 사회의 유대감과 가족의 중요성, 자연환경의 보존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학파가 전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의 동기를 이윤동기 이외에서 찾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행위의 동기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이 청지기 의식과 윤리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이 있다.

세계 각국의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적용된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관한 비판은 1970년대에 환경운동의 시작과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전과 문화의 보전도 고려하는 “경제발전”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발전하였다. “경제발전”에 관한 문제들은 특히 세계은행과 경제개발론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도 공리주의와 그에 기반한 신고전학파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경제성장이라는 가치를 한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현대 사회의 사회가치에 있다. 경제성장이 항상

좋은 것이라는 인식은 결국 물질주의에 근거하는데 공리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이는 성경의 가치관과 상반된다. 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들, 예를 들면 가족의 붕괴, 빈곤과 빈곤격차,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 공해와 환경 파괴 등의 영향은 기독교에서 제기하는 경제에 대한 청지기 의식과는 크게 상반된다는 것이다.

Goudzwaard(1978)은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발전과 근본적인 동인에 있어서 진보사상이 그 중심에 있다고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의 경제(Economy of Care)에 대하여 역설한다.

Goudzwaard and De Lange(1995)는 1980년대 이후에 정책담당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가지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폐해를 지적한다. 먼저 빈곤의 지속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빈곤이 세계무역의 증대와 국제원조 등으로 곧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낙관론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진단한다. 더군다나 선진권과 개발도상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의 문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적어도 개선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두번째는 지구환경 상태의 악화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 오존층의 파괴, 산업 폐기물과 산성비 등의 지구환경 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권에서 증가하고 있는 실업의 문제와 이들 선진권의 실업구제 대책의 무효성, 그리고 빈곤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물질주의와 성장 지상주의에서 찾으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청지기적 의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소비에 대한 무한대적인 욕망 대신에 충분한 소비의 개념을, 그리고 부자들의 과소비적인 행태보다도 가난한 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인간의 노동에 대하여 단순한 생산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여기는 사회문화의 창조를 말한다.

여기서 새로운 경제문화의 도입을 위한 제언들로 저자는 세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시장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에 제한을 가하면서 자원들이 일자리의 창출과 빈곤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증대, 환경보호, 작업환경의 개선에 사용되는 것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몇가지 예를 드는데 수익률의 목표와 함께 훌륭한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는 기업들, 취업자수의 증대와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노동그룹들, 환경문제에 있어서 Rio에서의 Earth Summit의 성공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사회로의 이행과 회복을 위한 12가지의 단계를 제시하면서 국제무역과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기업법의 변화 등을 주창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논의들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 전적

으로 부합하느냐의 문제와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의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남긴 하지만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외치는 현대사회에 청지기적인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들의 파급경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론화하면서 현대의 시장 자본주의와 성장제일주의가 구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결과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성장과 경제적 부가 어느 정도이며 경제성장에 제한이 주어질 경우 파급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경로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경제학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성장이 빈곤을 줄이는 가장 큰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빈곤격차와의 관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이 빈곤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의 근본목적은 어떠한 경제활동과 체계가 사회전체의 행복(부자의 행복만이 아닌, 그리고 물질적인 행복만이 아닌)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여기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인 청지기적 사상이 현대의 물질주의적인 사상에 대체하여 사회전체의 행복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과 사회양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Beckmann, David. 1981. *Where Faith and Economics Meet*. Minneapolis: Augsburg.
- Beisner, E. Calvin. 1988. *Prosperity and Poverty: The Compassionate Use of Resources*. Westchester, Ill.: Crossway.
- Beisner, E. Calvin. 1990. *Prospects for Growth: A Biblical View of Population, Resources and the Future*. Westchester, Ill.: Crossway.
- Birnie, Esmond, 1993, "Utilitarian Economics: A Theory of Immoral Sentiments", *ACE Journal* 16, pp1-17
- Catherwood, Fred. 1983. *On the Job: The Christian 9 to 5*. Grand Rapids: Zondervan.
- Copeland, Warren R. 1988. *Economic Justice: The Social Ethics of U.S. Economic Policy*. Nashville: Abingdon.
- Cramp, A. B. 1983. *Economics in Christian Perspective: A Sketch Map*. Toronto: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 Daly, Herman E. and John B. Cobb, Jr. 1989. *For the Common Good*. Boston: Beacon. Ch2, Ch3
- Diehl, William E. 1984. *The Guided Market System*. In Clouse 1984, pp. 85-109.
- Duchrow, Ulrich. 1987. *Global Economy: A Confessional Issue for the*

Churches? Geneva: WCC.

Dykema, Eugene R. 1989. *Wealth and Well-being: The Bishops and Their Critics*. In *Strain* 1989, pp. 48–60.

Gish, Art. 1984. *Decentralist Economics*. In *Clouse* 1984, pp. 131–159.

Goudzwaard, Bob. 1975.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Toronto: Wedge.

Goudzwaard, Bob. 1979. *Capitalism and Progress*. Grand Rapids: Eerdmans.

Goudzwaard, Bob and Harry De Lange. 1994, “Beyond Poverty and Affluence: toward an economy of care with a twelve-step program for economic recovery”, Wim. B. Eerdmans Publ. Co., Grand Rapids, Michigan

Halteman, James. 1988. *Market Capitalism and Christianity*. Grand Rapids: Baker.

Hay, Donald.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Leicester, UX: Inter-Varsity

Hay, Donald, 1994, “Banking on Technology? Technological Change and Christian Ethics for Economic Life”, *ACE Journal* 18, pp27–44

Henley, Andrew, 1987, “Economic Orthodoxy and the Free Market System: a Christian Crit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14(10), pp56–66

Hirsch, Fred, 1977, “The Social Limits to Growth”,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Hodge, Ian, 1986, “Baptized Inflation: A Critique of Christian Keynesianism”, Tyler, TX: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Hoksbergen, Roland. 1982. *The Morality of Economic Growth*. *Reformed Journal* 32 (Dec.), pp. 10–12.

Krieder, Carl. 1987. *The Rich and the Poor: A Christian Perspective on Global Economics*. Scottdale, Pa.: Herald Press.

Lee, Robert. 1981. *Faith and the Prospects of Economic Collapse*. Atlanta: John Knox Press.

McCullum, Hugh, Karmel McCullum, and John Olthius. 1977. *Moratorium: Justice, Energy, the North, and the Native Peoples*. Toronto: Anglican Book Centre.

McKee, Arnold. 1987. *Economics and the Christian Mind*. New York: Vantage. Ch9

Mishan, E. J., 1969, “The Costs of Economic Growth”, Harmondsworth” Pelican

Monsma, George N. 1980. *The Socio-Economic-Political Order and Our Lifestyles*. In *Sider* 1980a.

Myrdal, Gunnar, 1953, “The Politic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Nash, Ronald H. 1989. *The Subjective Theory of Economic Value*. In *Chewing* 1989b, pp. 80–96.

- National Conference on Catholic Bishops, 1986, "Economic Justice for All: Pastoral Letter on Catholic Social Thought and the US economy", Washington D.C.: US Catholic Conference
- Novak, Michael. 1982.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Owensby, Walter L. 1988. *Economics for Prophets*. Grand Rapids: Eerdmans.
- Pemberton, Prentiss and Daniel R. Finn. 1985. *Toward a Christian Economic Ethic: Stewardship and Social Power*. Minneapolis: Winston Press.
- Rasmussen, Larry. 1981. *Economic Anxiety and the Christian Faith*. Minneapolis:Augsburg. Ch7
- Richardson, J. David. 1988. *Frontiers in Economics and Christian Scholarship*. *Christian Scholar's Review* 17 (June), pp. 381–400.
- Scitovsky, T., 1976, "The Joyless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der, Ronald J. 1990.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3rd edition. Dallas: Word. (Previous editions 1977 and 1984, by InterVarsity Press of Downers Grove.) ch2
- Stivers, Robert. 1976. *The Sustainable Society and Economic Growth*. Philadelphia:Westminster.
- Taylor, Richard K. 1973. *Economics and the Gospel*. Philadelphia: United ChurchPress.
- Tiemstra, John P., W. Fred Graham, George N. Monsma, Carl J. Sinke, and AlanStorkey. 1990. *Reforming Economics: Calvinist Studies on Methods and Institutions*.Lewiston, N.Y.: Edwin Mellen.
- Tiemstra, John P., 1993 "Christianity and Economics: A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Christian Scholar's Review*
- Vandezande, Gerald. 1984. *Christians in the Crisis*. Toronto: Anglican Book Centre.
- Vickers, Douglas, 1976, "Economics and Man: Preclude to a Christian Critique", Nutley, NJ: Craig Press
- Vickers, Douglas. 1982. *A Christian Approach to Economics and the Cultural Condition*. Smithtown, N.Y.: Exposition Press.
- Wilber, Charles K., and Kenneth P. Jameson. 1982. *Goals of a Christian Economy*
- Wauzzinski, Robert. 1989. *The Gospel, Business, and the State*. In *Chewing* 1989a, pp. 203–222.
- Wilkinson, Loren, ed. 1980. *Earthkeeping: Christian Stewardship of Natural Re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A new edition is due in the fall of 1991.)

Monsma, Stephen V., ed. 1986. Responsible Technology. Grand Rapids: Eerdmans.

Yoder, John H. 1986. Minority Themes. In Block 1986, pp. 281-301.

IV. 기독교 경제학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들

A. 노동과 실업

노동과 실업, 임금의 문제는 기독교 경제학과 경제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실업과 정당한 보수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할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공동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알맞은 대가(due)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제정의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과 실업에 관한 문제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지역에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 졌다. 기존의 노동경제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판은 현대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노동경제학이 인간과 그의 행동양식을 보는 관점에 있다. 현대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을 여가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활동, 단순히 임금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가정하고 소득의 제약조건 하에서 여가와 소비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소비와 저축수준을 선택하고 노동 시장에 노동을 공급한다는 이론을 세운다.

여기서 현대 노동경제학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노동 자체가 의미 있는 활동, 혹은 “효용”(현대경제학의 용어를 쓴다면)이 되며 사회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은 이익극대화를 위한 노동투입을 말하지 않으며 필요를 채우는 노동과 창조적인 청지기적 활동으로의 노동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노동시간의 선택과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와 소비의 효용극대화에서 유추될 수 없는 것이다. 현대 경제학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노동의 공급과 노동활동이 단순한 개인의 작업으로만 취급하지만 노동이 사회활동과 경제의 청지기적 활동과 관련한 협동의 관계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동기에 있어서 현대경제학은 임금과 인센티브의 제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독교 경제학은 오히려 청지기적 사명과 이타주의 정신, 가정과 직장내에서의 인간관계 등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미국적 자본주의 하에서 정착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기독교 경제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현대 경제학,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옹호되고 있으나 관계를 중시하고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기독교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우려한다(Henley, 1999).

여기에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의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도 지적하면서 기업의 임금지급구조와 인센티브 구조가 근로동기 부여의 차원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의의 입장에서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정부가 직장 재교육이라든지 적극적인 직업알선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경제학에서 기독교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완전고용의 문제와 정당한 임금에 관한 문제가 있다.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실업의 사회적 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인간적 존엄성의 상실, 일로부터의 박탈 등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완전고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이 된 경우에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작업환경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Britton, 1996, Birnie, 1996). 특히 정당한 임금(Fair Wage)에 관한 논의는 카톨릭 전통에서 논의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기독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논의들은 완전고용이나 정당한 임금과 같은 주요한 논점에 대하여 기존의 경제학의 한계와 오류를 지적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책 등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현대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실업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현대 경제학이 제시하는 임금이론이 아닌 또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제시가 아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의 설득력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현상인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한 임금과 작업환경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당한 임금체계의 도입이 기업과 노동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고 실제로 정당한 임금체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과 실업, 임금과 작업환경 등의 문제가 청지기 개념을 내세우는 기독교 경제학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아직 기존의 경제학의 비판과 현실진단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여 진다.

참고자료

Birnie, Esmond, 1996, "Unemployment: A Christian Response", ACE Journal 21, pp9-32

Britton, Andrew, 1996, "Full Employment as A Policy Aim",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cs, #21, pp1~8

Cullity, John P., 1990, "Employment and Macroeconomics", in Finn, James(ed.), "Private Virtue and Public Polic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 1990, pp95-106

Christ, Carl, 1987, "Unemployment and Macroeconomics", in Gannon, Thomas M.(ed.), "The Catholic Challenge to the American Economy: Reflections on the US bishops", Pastoral Letter on Catholic Social Teaching and the US economy, New York: Macmillan pp116-127

Henley, Andrew, 1999, "Work and Unemployment", Lecture in the Series:The Culture of Economics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Centre for the Study of Christianity and Culture, Regent's Park College

Stott, John, 1990, "Work and Unemployment", in his book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2nd ed., London: Marshall Pickering, ch9

Storkey, Alan, 1986, "The Professional Closed Shop", in his book "Transforming Economics: A Christian Way to Employment", London: SPCK, pp115-129

Unemployment and the Future of Work: An Enquiry for the Churches", London: Council of Churches for Britain and Ireland, 1997

B. 금융시장 및 이자율

금융시장에 있어서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도덕적 기준의 마련을 촉구한다. 금융시장에 있어, 금융자본의 투자와 자본 이득의 추구에 있어서도 경제의 기본원리인 청지기적 의식과 책임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resources)의 사용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목표로 자본이 최선의 투자기회로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생산적인 자세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추구가 도덕과 경제정의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기초의 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특히 영국 등의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 스캔들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높았던 19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장 크게 비판 받는 것은 투자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금융 자본 투자와 흐름이 실물경제의 투자와는 거리가 먼 금융거래 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적인 성격의 금융거래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자본거래와 이익추구가 자원에 대한 청지기적 의식에 정면으로 반대됨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일반 경제학에서 널리 알려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의 문제도 제기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문제점들, 특히 투기적 성격의 국제금융자본 흐름의 팽창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빈세의 제정이나 국제적인 정부 공조를 촉구하면서 이와 더불어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도덕적 규정의 제정을 촉구한다. 특히 IOSOC(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에서 제정한

“International Conduct of Business Principles”가 도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이 실용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성 회복과 규제강화를 제기한다(Mizen, 1995, Sparkes, 1995, Frowen and McHugh, 1995).

실제로 국제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1970년대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빈번히 반복되면서 일반 사회와 경제계에서 계속 되어왔다. 이러한 투기자본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투기자본이 일반투자자들의 위험해지 수단으로 사용되어 금융시장에서 보험과 같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하나 이들 투기자본이 형성하는 막대한 시장은 보험의 보장성을 넘어서 그 자체만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헤지펀드인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의 파산과 국제금융시장에의 영향을 든다.

여기에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인 기초 위에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도덕적 강령과 규제의 제정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조세피난처(off-shore tax haven)와 같은 규제회피수단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에서 비도덕적 행위와 스캔들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들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적인 청지기 의식과 책임감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적정 이자율의 문제가 기독교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자율의 제한은 이자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을 좌악시킨 중세시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성경에서도 고리대금을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러한 이자제한에 대한 전통은 유럽과 영국, 미국을 거쳐 아직까지도 서방세계에 많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자율 제한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절반 정도의 주가 이자제한법률을 주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15~30%가량의 연이율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채시장의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이자율 60%의 이자제한 상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이우성, 2001).

이자율제한에 대하여 현대경제학은 이자율의 결정은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시장외부에서 결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자율 제한에 의하여 사회적인 효용이 오히려 증대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Glaeser and Scheinkman, 1994, Coco and de Meza, 1999).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과도한 이자율의 부과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자본의 대출에 있어서 관대할 것을 요청하는 경제정의와 자본 사용의 청지기적 사용의 관점과 명백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자율 제한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된다.

이자율의 제한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금융시장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한계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자본공급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

운 사업의 시작이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자본이 필요한 경우, 담보물이나 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빈곤계층 들에 대한 신용공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도시빈민이나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미시금융(Microfinance) 추세가 1990년대 들어 세계은행과 NG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있어서 이자율 제한이나 저소득계층에의 신용공여 방식 등의 실천적인 방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이 미흡하다. 또한 적정이자율의 선택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학에 반론을 제기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론이 부재하며 이자율 제한과 적정 이자율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기준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향후 기독교 경제학 분석에 있어서는 경제의 효율성 측면이라는 자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가치관 뿐만 아니라 자본의 청지기적 사용과 빈곤계층에 대한 자본공여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자본시장의 작동과 적정이자율 결정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행동양식에 따라 적정 이자율이 결정될 때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이우성, 2001, “사금융 폐해의 근본해결책, 소액대출시장 활성화”, LG주간경제(2001. 7.4), LG경제연구원
- Coco, Giuseppe, and David de Meza, 1999, “In Defense of Usury Law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University of Exeter Seminar paper
- Cramp, Anthony B., 1995, “What Kind of Financial System Do We Want?”, Ethics and Finance Group Paper No.2, Cambridge: Von Hugel Institute
- Frowen, Stephen F., and Francis P. McHuge, 1995, “Financial Decision-Making and Moral Responsibility”, Basingstoke: St. Martin’s Press/Macmillan
- Glaeser, Edward L., and Jose A. Scheinkman, 1994, “Neither a Borrower Nor a Lender Be: An Economic Analysis of Interest Restrictions and Usury Laws”, NBER Working paper #4954
- Kee, B., 1988, “The Capital Debate and the Economic Aspect of Reality”, in Marshall, Paul A. and Robert E. Vander Vannen, “Social Science in Christian Perspective”, Lanham, MD, US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Mills, Paul, 1990, “Interest in Interest: The Relevance of the Old Testament Ban on Interest for Today”, Cambridge: Jubilee Centre Publications
- Mills, Paul, 1993, “The ban on Interest: Dead Letter or Radical Solution?”, Cambridge Papers 2(1)

Mills, Paul, 1995, "Faith versus Prudence? Christians and Financial Security", Cambridge Papers 4(1)

Mills, Paul, 1995, "Investing as a Christians: Reaping Where You Have Not Sown?", Cambridge Papers 5(2)

Mizen, Paul, 1995, "Ethical and Moral Issues in Financial Markets", ACE Journal 20, pp1-13

Sparkes, Russel, 1995, "The Ethical Investor", London: Harper Collins

C. 토지경제학

기독교 경제학의 가장 큰 부류의 하나는 헨리조지의 사상에 기초한 토지경제학에 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산업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하면서 토지를 자본의 한 카테고리로 편입시킨다. 반면에 헨리조지학파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빈부격차의 폐해는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의 격차에 있다고 본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과 해결을 모두 토지문제의 기독교적 해결에 두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열과 버블 붕괴 등이 현대경제의 심각한 문제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헨리조지는 물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지대의 증가가 임금을 압박하는데 있다고 보고 그 근본원인은 현대사회의 토지사유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토지사유제 대신에 토지가치세제의 부과를 통한 토지가치공유제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몇몇 지역사회에 적용되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헨리조지의 사상은 "진보와 빈곤"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간략히 그 주장을 요약하면 먼저 토지사유제를 비판하는 근거로 토지사유제하에서는 지대의 상승이 임금과 이자를 압박하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토지자본에 대한 노예화를 초래한다는 점, 토지사유제 하에서 토지의 최선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토지사유제가 기독교적인 경제정의의 입장에서 불의하다는 것을 제시한다(전강수, 1986).

여기에 토지사유제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성경의 희년사상을 근거로 토지사유제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토지공유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은 그대로 둔 채, 지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회수하는 토지가치세제를 제정할 것을 주장한다. 토지의 개인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대상승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라고 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토지가치세제의 제정을 주장한 것이다. 헨리조지는 이어 토지가치세제의 제정이 부의 불평등과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전강수, 헨리조지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개혁, 1996).

헨리조지의 사상과 연구는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쳐 헨리조지협회를 통하여

계속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자본의 지대상승과 투기자본의 형성, 그로 인한 사회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 이는 토지자본과 지대가 전체 자본과 이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작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산의 다른 요소인 노동과 금융자본, 실물자본의 형성과 사용, 그 가격의 결정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헨리조지의 연구가 경제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생산요소의 기본요소인 토지자본에 대한 가격의 공정성(지대에 대한 경제정의)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 실물자본, 인적자본에 대한 공정한 가격결정과 함께 토지, 금융, 실물자본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의 노동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생산활동과 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 각 생산요소들의 가격과 수량의 결정등을 통하여 생산함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비판 및 제안들은 환경경제학과 맥락을 같이하여 자연의 사용과 보존에 대한 청지기적 의식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전강수, 1996, “헨리조지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 개혁”, 통합연구 29, 제9권 1/2호

전강수, 한동근, 2000, “토지를 중심으로 본 성경적 경제학”, CUP

Cooper, Tim, 1990, “Green Christianity: Caring for the Whole Creation”, London: Spire

Daly, H.E. and J.Cobb,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s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London: Green Print/Merlin Press

Henry, George, 1984, “Progress and Povert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Houghton, John, 1994, “Global Warming: The Complete Briefing – an investigating of the evidence, the implications, and the way forward”, Oxford: Lion

Klay, Robin Kendrick, 1986, “Protecting Air and Water Resources” and “Land Use: One Issue in Natural Resource Policy”, in her book “Counting the cost: the Economics of Christian Stewardship”, Grand Rapids: Eerdmans, ch6, ch7

Wright, Christopher JH., 1995, “The Theology and Ethics of the Land”, in his book, “Walking in the Ways of the Lord: The Ethical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Leicester: Apollos, pp181-196

D. 소비자행동

소비자의 행동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관점은 개인의 소득과 부에 대한 청지기적 사용과 근검절약, 구제와 저축에 대한 의식으로 집결된다. 소비생활이 악이라는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배격하지만 소비에 있어서의 무절제한 행동과 탐심을 경계하고 필요에 따른 소비 생활과 더불어 절제하는 정신, 구제와 저축에 대하여 강조한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주의(consumerism)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의 집약화, 노동의 세분화, 규모의 경제를 위한 대량생산 체제는 필연적으로 과잉생산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들 과잉생산물에 대한 강제된 소비가 수반된 과소비 풍조를 강하게 비판된다. 심지어는 자본주의 체제가 광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부추기면서 필요소비가 아닌 과잉소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하여 진다. 이러한 필요소비나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기업들이나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적인 사상에서 만들어진 과잉소비풍조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로 인한 자연자원의 낭비와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함께 기본적인 성경적인 관점에 대한 사상과 실천강령들이 많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Tiemstra et al.(1990)는 현대 경제학의 소비에 있어서의 효용극대화 이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존의 경제학이 가족을 경제생활에 있어서 주변적인 역할로 전락시켰지만 실제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족단위는 경제활동과 동기, 가치체계의 중심에 있다고 제언하고 제도학파적인(institutional) 접근법을 사용하여 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단위으로써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독교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부와 소득에 대한 소비와 저축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구목표가 무엇인지 청지기 의식에 입각하여 정의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의 논의들은 소비와 저축 행위에 있어서의 기독교적인 입장인 청지기적인 의식에 대한 정의와 실천방안 들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서 효용극대화 이론이 공리주의에 기초한 물질주의적이고 결과주의적인 가치관임을 비판하면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를 배격하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행동양식을 이론화하여 현실경제에 적용하고 설명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기독교 소비자 이론이라고 불릴만한 청지기 사상을 기본으로 한 소비자 이론이 부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박종균, 1997, “소비사회, 대중문화, 기독교”, 한들 출판사

- 신국원, 1999, “기독교인의 생활윤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 교육부편
- Browning, D., 1994, “Egos Without Selves: A Theological-Ethical Critique of the Family Theory of the Chicago School of Economics”, in Beckley Harlan(ed.),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artropp, Andrew(ed.), 1988, “Families in Debt: The Nature, Causes and Effects of Debt Problems, and Policy Proposals for Their Alleviation”, Cambridge: Jubilee Centre Publications
- Sparkes, Russel, 1995, “The Ethical Investor”, London: Harper Collins
- Tiemstra, John P., W. Fred Graham, George N. Monsma, Carl J. Sinke, and Alan Storkey. 1990. Reforming Economics: Calvinist Studies on Methods and Institutions. Lewiston, N.Y.: Edwin Mellen. Ch7, ch8, “Inside the Black Box”, and “The External Relationships of the Family”

E. 기업의 투자 행태 및 기업 형태

현대 경제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경제주체는 기업이다. 신고전학파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익극대화라고 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 활동을 유추한다. 그러나 기업의 추구목적이 순수하게 이익극대화라는 가치관은 인간의 청지기적 의식을 강조하는 기독교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서구 경영학과 경영계에서는 1980년대 수 많은 경제 스캔달을 겪으면서 경영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1990년대 들어서는 서구 기업들의 경영관행에 경영윤리가 대부분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많은 경영학 코스에 경영윤리 과목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윤리는 주로 기업의 지배체계(corporate governance),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최고경영에서의 회부감사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기업 내 모든 고용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의 제정과 시행, 감시 시스템도 시도되고 있다(Henley, 1998).

경영윤리에 대한 논문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실용철학의 한 부분으로써 경영윤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들과 MBA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실천하여야 할 경영윤리의 덕목, 강령들을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윤리가 단순히 기업전체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일과 윤리를 연계시키는 논문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러한 기업의 도덕성이 실제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련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었다(Sparkes, 1995).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경영학에서의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 이익극대화라는 기업의 추구가 윤리와 도덕성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독교

교적인 입장에서 기업윤리를 제시한다. 여기서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은 기업윤리의 성공에 있어서 감사체계의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 등과 함께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역할이 이익추구라는 목적이 공존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익추구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한 집합으로써 사회의 필요들을 채우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목적은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기업의 이익창출은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의 “결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내에서 각각의 개개인에 대한 상호간의 도덕적인 신뢰가 시장경제의 작동과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본다.

또한 기업 내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고결함과 정직함, 청지기적 의식이 가져올 수 있는 경영상의 장점들을 제시한다. 실제로 기업내의 경영자들, 종업원들이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경영자와 주식투자자간의 principal-agent problem이나 기업의 단기이익을 노린 허위광고, 종업원들의 최선의 노력기피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개인의 이익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게 되면 특히 규제나 사회적 도덕성이 추락한 국가에서 부패와 비정직성의 만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자기회의 확대보다는 비효율성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기업 경영자들이 추구할 수 있는 허위광고 등의 비정직한 행동들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려 기업의 수익감소의 피해를 갖고 온다고 말한다(economics of reputation).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경영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principal-agent 문제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경영자들의 도덕적 윤리가 필요한 문제이다. 종업원들의 성실한 근무 역시 종업원들의 자사주식 매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각 개인이 청지기적 의식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그러한 문화의 창출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Jones and Pollitt(1995)는 게임이론 모형을 통하여 사회가 상호간에 정직에 대한 신뢰의 문화가 정착될 경우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비정직성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경제의 투명성 증진을 통하여 사회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실증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업들의 윤리적인 행동들이 경쟁사회에서 좋은 경영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 윤리적인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원가에 밀려 수익창출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시사점들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윤리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경영능력이 뛰어나며 이들의 경영성고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윤리실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Henley, 1998)..

또한 1970년대부터 주로 기독교 단체로부터 시작된 도덕적 투자(ethical investment)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도덕적 투자재원의 경영진들은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들과 이들의 투자에 자금을 대출한다. 이러한 운동은 특히 환경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이외에도 투자기준에 있어서 도박과 담배분야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실증적으로 도덕적 투자펀드의 수익률이 일반펀드에 대하여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라파이트 정권의 권력이양과 관련하여 이 국가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이들 도덕적 투자펀드가 행사한 압력으로 투자자금이 크게 회수되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Sparkes(1995)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제가 돈과 이익추구가 중심이 아닌 가치의 공유를 중심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이는 특히 환경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이 윤리적이고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된다.

참고자료

- Goyder, George, 1987, "The Just Enterprise", London: Andre Deutsch
- Harries, Richard, 1992, "Is There a Gospel for the Rich? The Christian in a Capitalist World", London: Mowbray
- Hay, Donald, 1989, "The Public Joint-Stock Company: Blessing or Curse?" ACE Journal No.8, pp19-47
- Hay, Donald, 1991, "What is fair in the Market Place? Reflections on Competition Policy", ACE Journal No.11, pp33-45
- Henley, Andrew, 1998, "Has Business Ethics a Role to Play in the Competitive Economy? A Review Articl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25, pp31-42
- Jones, Ian W., and Michael G. Pollitt, 1995, "Economics, Ethics and Integrity in Busines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21, pp1-21
- Stackhous, Max L. et al(eds.), 1995,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Grand Rapids, MI: Eerdmans
- Storkey, Alan, 1986, "Profit and Loss", in his book, "Transforming Economics: A Christian Way to Employment", London: SPCK, pp97-113
- Sparkes, Russell, 1995, "Business Ethics: The Emperor's New Cloth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20, pp14-26

Tiemstra, John P., W. Fred Graham, George N. Monsma, Carl J. Sinke, and Alan Storkey. 1990. *Reforming Economics: Calvinist Studies on Methods and Institutions*. Lewiston, N.Y.: Edwin Mellen., ch10, "Firms and their Workers"

F. 빈곤문제

빈곤과 자선, 빈부격차, 제3세계의 빈곤문제에 대하여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의 실상과 국가 내, 국가간 빈부격차의 현실에 대하여 기독교인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빈곤구제와 구호활동을 위한 기독교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기독교는 비자발적 빈곤이 어떤 형태로든 타락의 결과라고 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함을 갖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와 공평, 자선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고 본다.

기독교에서는 부와 빈곤, 사유재산권과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한 연구, 빈곤구제와 성경적 정의의 실현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현재의 빈곤 실상에 대한 연구, 실천적인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독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현재의 빈곤상황에 대한 현실 파악과 원인에 대한 직관적인 분석이 시도 되기는 하였으나 심도있는 분석과 이론이 마련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난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된다. 죄된 개인의 잘못을 제외하고 구조적인 사회악을 예시할 경우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들 수 있다. 한 개인이 적절한 생산수단과 자기발전의 기회, 교육, 자본을 가지지 못할 경우 빈곤의 대물림이 지속된다. 여기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와 부적절한 사용은 지역 내, 국가 내, 국가간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문화적, 역사적인 원인들로는 죄된 개인의 선택,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잘못된 계급구조와 문화관, 세계관, 종교적 체계, 인종적 성적 차별, 전쟁, 서구의 식민지 정책 등이 제기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장경제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 제3세계의 부채문제, 빈곤국가의 환경 파괴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경적 정의(justice)는 옥스퍼드 선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몫을 편견없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의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외국인들, 임금 노동자와 노예들에 대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함께 나눌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 가운데 약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이 인격체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기독교 경제학에서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현

대사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빈곤의 악순환과 빈부격차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내에도 빈부격차의 폭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낮은 빈부격차로부터 비교적 높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 등의 시장지향적 자본주의,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서의 높은 빈부격차 등 상당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내재적으로 갖을 수 있는 빈부격차와 빈곤심화의 원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간 빈부격차의 존재와 지속성에 대한 연구도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요구한다.

이러한 빈곤과 빈부격차의 현상의 존재와 원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독교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정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자선적 구제와 구호 노력, 인권 보호 노력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향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빈곤과 빈부격차의 구조적 불의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적인 변화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개발론자들을 중심으로 빈부격차의 문제와 경제성장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독교 경제학에서도 성경적 정의의 실현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빈곤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곤구제에 있어서 교회나 개인 등 사회 구성원들의 구제노력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에서의 공동체적인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들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을 지지한다. 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제안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한 세제개편안과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Alkire, Sabrina, 1996, "Conceptions of Human Fulfillment in Poverty Reduction", ACE Journal 21, pp33-49
- Biggar, Nigel and Donald Hay, 1994, "The Bible, Christian Ethics and the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7(2), pp43-64
- Beisner, E. Calvin, 1994, "Justice and Poverty: Two Views Contrasted", in Schlossberg, Herber et al.(eds.), "Christianity and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Oxford Declaration and Beyond", Grand Rapids, MI: Eerdmans, pp57-80
- Carlson-Thies, Stanley W., and James W.Skillen (eds.), 1996, "Welfare in America: Christian Perspectives on a Policy Crisis", Grand Rapids, MI:

Eerdmans

- Green, Ronald M., 1984, "Ethics and Taxation: A Religious Framework",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2, pp146-61
- Dilnot, Andrew, 1991, "What Sort of Social Security System?", *ACE Journal* No.12, pp32-46
- Dorr, Donal, 1992, "Option for the Poor: A Hundred years of Vatican Social Teaching", Maryknoll, NY: Orbis
- George, Susan, 1994, "A Fate Worse Than Debt: A Radical Analysis of the Third World Debt Crisis", Harmondsworth: Penguin
- Gonzales, Justo L., 1990, "Faith and Wealth: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Ideas on the Origin, Significance, and the Use of Money",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Hynd, Douglas, 1985, "Tragedy and Choice: The Limits of the Market and the Economics of Caring", *St. Mark's Review*, No.123-124, pp55-65
- Hynd, Douglas, 1989, "The Limits of the Market: Christian Ethical Reflections on the Economics of Health Care", *ACE Journal* No.7, pp37-51
- Klay, Robin Kendrick, 1986, "Trade Policy", and "Poverty Among the Nations: Hope for Those Who Live at the Bitter Margin", in her book "Counting the Cost: The Economics of Christian Stewardship", Grand Rapids: Eerdmans, ch8, ch5
- Mason, John D., 1987, "Assistance Programmes in the Bible", *Transformation* 4(2), April/June 1987, pp1-14
- Mason, John D and Kurt C. Schaefer, 1990, "The Bible, the State and the Economy: A Framework for analysis", *Christian Scholar's Review*, 20(1), 1990, 45-64
- Mott, Stephen Charles, 1994, "The partiality of Biblical Justice: A Reply to Calvin Beisner", in Schlossberg, Herbert et al (eds.), "Christianity and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Oxford Declaration and Beyond", Grand Rapids, MI: Eerdmans, pp81-99
- Newbigin, Lesslie, 1985, "The Welfare State: A Christian Perspective", *Theology* 88, pp173-82
- Remenyi, Joe and Bill Taylor, 1994, "Credit-Based Income Generation for the Poor", in Schlossberg, Herber et al.(eds.), "Christianity and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Oxford Declaration and Beyond", Grand Rapids, MI: Eerdmans, pp46-56
- Stivers, Robert L., 1989, "Tax Ethics: An Oxymoron?", in Stivers, Robert L.(ed.), "Reformed Faith and Economic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Storkey, Alan, 1993, "A Christian Economics and Sociology of Health", in Fergrusson, Andrew(ed.), "Health: The Strength to be Human", Leicester:IVP
- Stott, John, 1990, "Poverty, Wealth and Simplicity", in his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2nd ed., London: Marshall Pickering, ch2
- Verhey, Allen, 1994, "The Good Samaritan and Scarce Medical Resources", Christian Scholar's Review 23(3), pp360-73
- Verhey, Allen, 1985, "Sanctity and Scarcity", Reformed Journal 35(2), pp10-14
- Wogaman, J.P., 1988, "Economics and Medicine: Theological Reflections", Second Opinion 8
- Wogaman, J.P., 1990, "Towards a Christian Definition of justice", Transformation, 7(2), pp181-184
- Wolterstorff, 1983, "The Rich and the Poor", in his book,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MI: Eerdmans, ch4

V. 결론 및 제언

현대에 들어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경제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기독교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상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결과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관점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경제학이 갖는 모순점들을 한계를 비판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가 갖는 물질주의적이고 성장지상주의적인 가치관들과 그에 따른 사회의 피해들에 대하여 청지기 의식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바탕으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와 쉼, 실업, 임금, 이자율과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윤리,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문제, 소비자 행동과 기업의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기독교적인 행동양식과 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 경제학의 사상적인 기초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현실 비판과 대안적인 기독교 사상과 행동양식의 제시는 경제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론체계를 발전시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기독교 경제학이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고 기독교 사상을 제시하지만 현실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단순화, 이론화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경제학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를 통한 현실경제의 분석과 새로운 대안 제시는 존재하지 못하며 직관

적인 수준에서의 분석과 대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기독교 경제사상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 경제학이라고 불리만한 이론들은 헨리조지의 토지경제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기독교인 경제학자들 밖에서의 현실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만은 않다. Goudzwaard(1995)가 지적했듯이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은 이익극대화의 명제만을 따르며 살지는 않으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두신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선한 노력들은 단지 개인적인 구제의 차원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도한 이자율의 금지나 선진권에서 보여진 노사관계의 진전과 작업환경의 개선, 빈곤구제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등, 많은 선한 결과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진다.

세계은행과 개발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에 있어서 경제성장 만이 아닌 다른 사회적 가치들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세계의 빈곤과 빈부격차의 해소에 관한 연구가 비기독교인 경제학자들 가운데에도 활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Work Sharing에 대한 관심이 높고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등 노동경제학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관점이 스며 나오고 있다. 기업윤리는 앞에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학의 한 분야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도시빈민들을 대상으로 소액금융을 제공하는 미시금융(Microfinance)에 대하여 1990년대 들어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의 경제학 내에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물질적 이익극대화 가정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제도학파의 경우 부정부패, 사회적인 부도덕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사회 내에서의 도덕적 가치체계와 법체계 등의 제도적 측면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한 이익추구의 가정이 현대경제학의 모든 기초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학파들의 경제학에 대하여 기독교 경제학자들은 상당한 호의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학파들과 다른 점은 이들이 사회의 법체계나 도덕적 가치체계 등의 사회문화적 구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기독교 경제학은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삶의 행동양식에 또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기독교 경제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세가지로 제시하고 싶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들, 특히 소비자와 기업, 생산자의 경제활동 등 구체적인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관한 기독교적인 시각을 구체화하고 다듬으며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의 발전은 기독교 경제학의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론, 그 적용과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두번째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경제와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경제체제를 기술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현대 경제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효용극대화를 통한 노동시간과 소비, 저축 선택과 수익극대화를 위한 기업들의 공급량과 가격 결정이론이다. 거시경제학 이론들은 주로 현실의 거시경제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관찰, 규칙을 유도하여 현실세계에 대한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시경제학적 이론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지배적이어서 소비자들과 기업의 이익극대화가 현대 경제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재정경제학과 복지경제학의 근거로도 역시 공리주의에서 발전한 형태의 사회효용 함수와 파레토 최적이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기독교 경제학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효용극대화 수익극대화 이론과 그에서 확대된 사회효용 극대화 이론에 대응되는 기독교적인 사상에 기초한 이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효용극대화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독교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독교적인 사상은 명백히 소비자들의 자기만족 극대화를 통한 소비와 저축의 행위결정을 반대하고 근검절약과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는 삶과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 기독교적인 소비자 행동에 기초한 새로운 소비자 이론은 필요불가결하다. 현실세계에서는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효용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사회 내에서 이익극대화의 이기주의적인 소비자와 기본적인 필요만을 채우고 이타주의적인 자선을 극대화하는 기독교적인 소비자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기독교 경제학의 도입은 현실세계에 대한 더욱 정확한 묘사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독교 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의 행위들에 대한 선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사회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이론들의 발전은 사회 내에서의 기독교적인 나눔의 삶의 가치관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 경제학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경제학이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생산요소 시장과 상품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작업환경을 말씀하시고 있고 기독교 사상은 완전고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토지시장에 있어서도 과도한 이자와 지대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대 경제학은 순수하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자본과 토지사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임금, 이자율, 지대, 그리고 그 사용량들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결정이론은 성경적 경제정의의 입장에서 분명히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론적 체계와 발

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이론적인 기독교 경제학의 발전과 더불어 기독교 경제학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은 현실세계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청지기적 의식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방안과 정책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기독교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에 기초한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경제학자의 기본목표는 경제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행동규범인 “경제정의와 자선의 문제”를 실제 사회와 교회에 선지자적인 자세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정의와 자선의 문제, 경제활동의 규범과 윤리들을 사회에 제시함과 동시에 현 사회의 왜곡된 경제질서와 죄악에 대한 현상황의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고, 왜곡된 경제현상들과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들, 새로운 법 규범을 제안하여야 한다.

실례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업 피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자율 제한과 사채시장 양성화를 골자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이자율 제한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10%미만의 엄격한 적용을 추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기존의 금융권이 공급하지 않음으로 고리사채대금이 성행하자 이자율 제한을 완화하고(현재 미국의 경우 절반 정도의 주에서 20~30%정도의 이자율 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대신에 소액대출시장을 활성화 함으로써 고리대금의 폐해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다. 여기서 소액대출시장의 출범과 관련하여 초기에 기독교인들의 자본제공이 계기가 되었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자율 60%제한은 그 자체로 이미 과도하며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자율 제한을 30%미만으로 낮추고 반대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기법을 갖추고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액대출시장에서도 외면 받는 극빈계층의 자활 노력에 대하여 미시금융(Microfinance)을 자선적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는 한가지 예에 불과하고 필자의 개인 연구결과에 기인하지만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이 사회에서의 경제적 정의와 자선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연구결과와 사회의 선한 규제와 정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적인 사상기조로 부상하면서 다원주의 사회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을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경제학자들도 이를 몸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현대에 만연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발전한 현대 경제학의 오류와 현대 사회에 만연해 가고 있는 경제적 불의와 맘몬의 우상, 그로 인한 죄된 결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치유하는 학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 분의 사랑이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에게도 만연하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